

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에 나타난 건강 담론과 계약 가족의 모순

이진송*

요약

본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적용하여 손창섭의 『삼부녀』를 읽어낸다. 1960년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삼부녀』는 건강 담론과 가족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텍스트이다. 1960년대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 기획과, 국민 전체의 삶에 긴밀하게 개입하는 삶의 기술이 중첩하며 공존한 시기였다.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이 상징하는 통치성은 ‘더 잘’ 살도록 하는 기술, 그러한 목표를 위해 인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삼부녀』에서는 1960년대 건강 담론이 개인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규율하면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도록 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주체로서 강인구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조교제를 하고, 정서적 만족을 위해 이상적 가족을 추구한다. 강인구가 형성한 새로운 비혈연 계약 가족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내세우며 친밀함을 공유한다. 당대가 유행한 정상 가족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비정상 가족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주제어: 손창섭, 삼부녀, 푸코, 통치성, 건강 담론, 생명관리정치, 계약가족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 '삶의 질'을 조절하는 테크닉과 통치성
2. 1960년대 건강 담론과 자기 관리 주체의 탄생
3. 이상적 가족의 아이러니와 정상성의 전유
4. 나가며

1. 들어가며 : '삶의 질'을 조절하는 기술과 통치성

손창섭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1952년부터 1959년까지 약 10여 년 간 총 30여편에 이르는 엽단편소설을 발표하고, 1960년대에는 주로 신문 및 주간지에 10여편의 장편소설을 연재했다.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았던 1950년대 작품과 달리, 1960년대의 신문 연재 소설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한편 문학적으로 평가절하당했다. 통속적이고 선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¹⁾이에 따라 손창섭의 초기 연구는 주로 1950년대의 단편 소설에 치우쳤다. 2000년대 이후 손창섭의 장편소설을 새롭게 해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손창섭의 장편소설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진행 중이다. “통속적 세태묘사의 이면에 강렬한 현실비판”²⁾이라는 해석은 손창섭 장편소설에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었던 통속성과 세속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갈래이다. 주로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을 현실 비판에 대한 알레고리로 분석한다.³⁾ 그 중에서 장편소설에서 반복·변주되어 나타나는 가족, 계약, 가부장

1) 천이두, 「60년대의 문학, 문학사적 위치」, 『월간문학』, 1969.12.

2) 방민호, 『몰래카메라의 의미-1060년대 한국사회 만화경으로 들여다보기』, 손창섭, 『인간교실』, 예맥, 2008, 466면.

3)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양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전 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방식」, 『아시아여성연구』 42, 2003;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9, 2008;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2013.

제 비판, 연애결혼 서사에 내포된 지배 규범의 균열을 다룬 연구⁴⁾는 본고와 문체 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손창섭의 『삼부녀』⁵⁾를 1960년대 통치성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삼부녀』는 손창섭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마지막으로 연재한 소설이다.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강인구는 중년 남성으로, 여대생 안경희와 원조 교제를 한다. 이후 자신의 혈연 가족을 해체하고, 친구의 딸인 김경미까지 받아들여 경희와 함께 3인 계약 가족을 꾸린다. 원조 교제, 계약 연애, 가족의 해체, 혼육, 계약 가족 등의 소재는 ‘막장 드라마’⁶⁾라는 수식을 붙을 만큼 파격적이다.

『삼부녀』에 대한 긍정적 해석⁷⁾은 계약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로

-
- 4) 박찬효, 「손창섭의 『길』에 나타난 지배 담론의 균열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이선미, 「1960년 전후 (성) 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적-손창섭의 『부부』(1962)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염승숙, 「신(新) 가정의 건설과 가부장(성)의 골래-손창섭 장편소설 〈부부〉 연구」, 『한국문학연구』 47, 2014;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 융합』 31,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 송주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탈주 욕망과 여성성: 196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김남희, 「1960년대 개발발전 국가의 ‘중어통치’ 일고(一考)-손창섭의 사회사업 모티프 소설 재독」,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강지희, 「1960년대 남성성의 유희와 속물적 주체의 탄생」,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천서윤,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장치’로서의 결혼과 가족주의의 균열-김승옥의 『보통 여자』와 손창섭의 『삼부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1,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 5) 『주간여성』 연재. (1969.12.30.-1970.6.24.) 본고의 인용은 예옥에서 2010년 출간된 단행본을 참고한다. 손창섭, 『삼부녀』, 예옥, 2010.
- 6) 방민호, 앞의 글, 2010.
- 7) 여경아, 「손창섭 장편소설 연구: 『인간교실』, 『삼부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문성국,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간관계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공중규,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8, 2012; 최경희,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교양’ 담론 연구: 연애결혼가족서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허운,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정수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의 변모와 극복양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보람, 「1960년대 손창섭 소

서의 대안 가족 혹은 유사 가족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나 가족주의를 탈피하거나, 여성 인물이 계약 주체로서 동등하게 관계 맺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비판적 독해는 계약가족 형성을 임시 공동체에 머무는 것에 불과한 도피⁸⁾로 보거나,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 계약 가족을 이루며 성적 판타지를 구현하거나 여성의 육체를 향유의 대상으로 전형화하는 문제를 지적⁹⁾하였다. 선행 연구의 통찰을 참고하여, 본 고에서는 인구의 '육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육구가 인구와 경희의 관계를 형성하고, 경미를 끌어들이고, 혈연 가족의 해체와 계약 가족 형성이라는 사건을 견인한다. 인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왜' 자신의 가족에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가족을 해체하면서까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꾸리려 하는가? 이러한 인구의 욕망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인구는 '좋은 삶'을 추구한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움직인다. 가족의 기능과 의미를 고민하는 것 또한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연장선에 있다. 인구의 육구는 삶의 질을 조절하는 기술을 이용한 1960년대의 통치성과 연루된다. 통치성은 18세기 이후 등장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권력의 기술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배'하는 형태였다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욕망에 따라 움

설의 가족공동체 연구,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허빛, 「손창섭 1960년대 장편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치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김세준은 『삼부녀』의 계약 가족 형성이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참조하며, 사회경제적 관계를 포함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자유 의식의 사회적 재생산과 소통에 의의를 부여했다.

- 8) 진기환,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박정선,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결핍'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9) 강유진, 「손창섭 신문연재 소설의 가부장제 인식과 알레고리—손창섭의 『인간교실』과 『삼부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김주리, 「손창섭 소설 속 여성의 나체와 시선의 문제」,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직일 때 최대의 효율적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통치성이다. 1961년 5월 시작된 박정희 체제는 흔히 경제개발과 고도성장, 정치 탄압과 폭력, 유신독재가 결합된 ‘개발 독재’의 시기로 불린다. 그러나 이 시기를 국가의 억압과 민중의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나, 강제/탄압/죽음의 위험만으로 요약할 수 없다. 권력의 작동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제나 억압 뿐 아니라, 경제 개발 같은 이익 추구를 위한 동의¹⁰⁾가 혼합되어 있다.

통치성 개념은 푸코의 생명 권력 분석에서 출발한다. 푸코에 따르면, 기존의 주권 권력은 생살여탈권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고전적인 ‘죽일 권리’는 17세기 이래 변형되어, 점차 생명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계발하고 육성하려는 새로운 권력 형태로 보완된다.¹¹⁾ ‘살게 내버려 두고 죽게 하는’ 생사 여탈권을 쥐었던 주권 권력이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생명 권력으로 교체된 것이다. “권력의 주된 역할은 생명의 보장, 유지, 증대, 정리”¹²⁾가 되었다. 다수의 인구가 사상하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현대의 시민은 국가에 책임과 대책을 촉구한다. 생명 권력의 통치 아래, 권력은 삶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생명 권력은 두 가지 중요한 극이 서로 중첩되고 교차하고 상호보완하며 전개된다. 하나는 인체의 해부정치로, 이것은 육체를 향하는 규율 권력이다. 육체의 조련, 훈육, 육체의 순응을 목표로 하는 감시와 규율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생명 정치 혹은 생체 정치로, 인간 집단인 ‘종’을 향한다. 이것은 안전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구의 출생률과 질병률, 사망률, 재산, 이주 등 삶의 모든 요소를 조율하고 조절한다. 이렇게 삶을 관리하는 권력의 기술을 푸코는 생명관리정치라고 칭했고, 이후

10) 조희연은 박정희 체제의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면 한편에, 열광적 지지자들이 보이는 강렬한 ‘동의’의 측면에 주목한다. -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11) 토마스 램케, 심규보 역, 『생명 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5, 66면.

12)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지식의 의지』, 나남, 2004, 154면.

통치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¹³⁾

정리하자면 통치의 목표는 “인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부, 수명, 건강 등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¹⁴⁾ 이는 억압이나 강제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인구가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효율적인 통치가 가능해진다. 푸코는 “인구는 욕구와 열망의 주체이면서도 또한 통치의 손아귀에 놓인 대상”¹⁵⁾이라고 표현한다. 통치성은 국가 이성과 개인 모두가 스스로 개인의 삶, 행동, 의식, 규범 등을 관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통치성은 사회 전체의 권력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체화의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¹⁶⁾이다.

1960년대의 통치성은 반공을 구실로 ‘죽일 권리’를 행사한 주권 권력, 국가가 전국민의 품행과 생활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규율 권력, 경제 성장과 ‘인간 개조’¹⁷⁾를 통해 국민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생명 권력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특성¹⁸⁾이 있다. 따라서 강력한 금지와 개입을 사용하는 통치술, 주체화를 통해 시민을 자발적으로 통치에 포섭하는 통치술, 보호와 양육의 얼굴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치술이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으로 작동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체제의 통치 기술 중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생명의 관리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통치 기술에 주목한

13) 미셸 푸코, 오토르망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14) 미셸 푸코, 오토르망 역, 『안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159면.

15) 미셸 푸코, 위의 책, 2011, 63면.

16)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40면.

17) “인간개조 없이는 지금 우리 민족이 지닌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이라는 새로운 역사창조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는 어렵다”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선집6』, 지문각 1969, 288면;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53호, 2014.

18) “그는 경제를 통치의 영역으로 이끌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데 발동한 권력의 양상만큼은 ‘주권자의 그것과 유사했다. 그 점에서 당시 박정희의 형상은, 푸코적인 의미에서, 통치자와 주권자 중 오로지 한 영역에만 포개어지지 않았다.” -강수환, 「‘박정희 신화’라는 꿈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1960년대 한국의 통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018, 13면.

다.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을 통제, 위생과 의료체제 보원을 통한 사망률 통제, 불량 청년의 교화감시규율을 통한 도시 안전성의 확보, 식량 생산량과 가격의 통제, 도시공간의 재편성과 국토개발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순환의 관리와 조절¹⁹⁾은 말하자면 ‘살리는 기술’, ‘더 잘’ 살도록 하는 기술, 그러한 목표를 위해 인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개발 내셔널리즘²⁰⁾은 이렇게 한국사회의 국가 발전 논리와 그것이 초래한 일상생활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개발 논리가 일상의 주체들에게 특정한 도덕과 욕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현상 및 과정을 표현한 용어이다.

통치의 차원에서 박정희 시대의 가족 계획 사업을 분석한 연구는 이 시기를 “태어나고 죽고 병드는, 돈을 모으고 물건을 사고 피임하며 낙태하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학교에 보내고 병원에 다니는 구체적인 세속의 삶은 이렇게 해서 정치의 장에 진입”²¹⁾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문학적 가치 평가 절하의 원인이었다. ‘통속성’을 정치적으로 독해할 가능성을 연다. 여기서 ‘빵’과 자유의 비유를 인용할 수 있다. 5·16 쿠데타 세력은 4·19의 ‘자유’의 담론을 ‘빈곤’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였고, 대중들 역시 그러한 담론의 변화 속에 급속히 휩쓸려 가면서 ‘빈곤의 정치학’이 형성²²⁾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빵’에 대한 욕구로 대체되었다고 분석한다. 빵은 경제 개발, 즉 빈곤의 탈출과 삶의 질을 상징한다. 통치성의 관점에서 보면, 빵과 자유 혹은 정치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빵, 그리고 경제 개발과 연동된 ‘더 나은 삶’이라는 당대의

19)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권, 2014, 54면.

20) “일상적 공간에서 ‘생활적’ 주체로서 행위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동시대 국가 시스템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자신들을 절합시키는 양상(‘동의’ 혹은 ‘이탈’의 방식으로)은 실제로 매우 복잡다기하며 이질적인 것이다.”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회, 2007, 2면.

21) 조은주, 『가족과 통치—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263면.

22)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제 30호, 2010, 100면.

통치성은 인구의 세속적 욕망과 연동된다.

『삼부녀』는 생명과 삶에 개입하는 통치성이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발표되었다. 또한 당대 현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여성들의 교양과 오락을 담당한 주간지에 연재된 작품²³⁾이다.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연재환경은 『삼부녀』에서 지배적 규범의 내면화와 인습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의미 변화와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었다는 점 또한 분석의 방향과 맞춤하기에 『삼부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는 『삼부녀』에 드러나는 건강 담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자기 관리와 결합하여 통치성이 근대적 주체를 형성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욕구는 가족의 본질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3장에서는 주인공들이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롭게 계약 가족을 형성하려는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고, 부부의 위상이 부상하고, 기능적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대표적인 기획이다. 가족주의를 탈피하는 듯 하면서도 또 다른 가족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계약 가족이 어떤 긴장감과 균열을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을 통치하는 테크닉과 실천을 읽어낸다. 또한 가족의 목적과 본질에 가장 충실한 가족이 형식적으로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아이러니가 『삼부녀』만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23) 손창섭은 신문 소설을 쓰는 동기에 대하여 ‘고급 독자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더 친근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무엇이든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손창섭 대담,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세대』, 1963.8.

2. 1960년대 건강 담론과 자기 관리 주체의 탄생

인생은 사십부터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억지다. 사십 내외의 중고품 인간들이 눈앞에 다가온 낙조의 초조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려본 자위적인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싱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는 역시 이십 전 후다. 체력에서 오는 넘치는 활력은 물론, 정신면에서도 온갖 가능성을 내포한 화려한 꿈이 아침 햇살처럼 치솟는 나이다. 한창 나이란 그런 시절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 좋은 시절도 어느새 흘러가버렸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속절없이 늙어가게 마련이다. 전문가가 쓴 글을 읽어보면, 여자는 스물서너년부터 남자는 스물대여섯부터 벌써 노화작용이 시작된다고 한다. 삼십만 넘어서면 여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도 이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이다.²⁴⁾

『삼부녀』의 첫 부분이다. 소설의 주인공 인구는 마흔 여섯의 중년 남성이자 각각 스무 살, 열일곱 살인 보경과 보연의 아버지이다. 그는 이전 같지 않은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를 절감한다. 인구의 느낌만은 아니다. “전문가가 쓴 글”은 노화 작용이라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권력은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에 부과함으로써 특정한 개인을 생산한다는 것이 푸코의 지식 권력론이다. 미디어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 역시 건강 담론을 구성한다. 담론은 규범화된 언어적 표현의 집합체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다른 언어적 표현들과 함께 예측 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존재한다. 특정한 발화와 언표들은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담론이 배제되기도 한다. 담론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구조화시키는 시스템이다. 담론은 권

24) 『삼부녀』, 6면. 이하 괄호 안에 면수를 표기한다.

력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우리의 지각을 구속한다.²⁵⁾ 젊음을 예찬하고 노화를 한탄하는 서술은 이후로도 몇 페이지에 걸쳐 계속된다. 인구와 친구들은 모여 앉아서 ‘갱년기’ 이후에 겪게 될 성욕의 감퇴를 우려한다.

1960년대는 전후 한국 사회의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시기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잘 살아야 한다. 보건소법 개정(1962), 식품위생법(1962), 기생충예방법(1966), 결핵예방법(1967) 학교보건법(1967) 등이 제정되며 건강에 대한 행정적 접근과 관심이 증가했다. 인쇄매체의 발달은 식민지 시기부터 활자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의 대중은 1950년대의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전달하는 의료지식이나 일간지에서 전파하는 영양, 위생과 같은 삶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²⁶⁾ 인구 역시 “텔레비전의 광고란”은 “갱년기 장애의 특효약”이라는 “강장제니 정력제니 하는 약”(8)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한다. 실제로 1969년도의 10대 광고주 중 여덟 개 광고주²⁷⁾가 모두 의약품 관련 업종일 만큼 대중은 의약품 광고에 자주 노출되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노화나 갱년기와 같은 증상들이 치료 혹은 개선 대상으로 병리화²⁸⁾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건강²⁹⁾에 대한 담론의 일상화, 국

25) 홍은영, 「푸코와 우리 시대의 건강 담론 -의료화 현상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50,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190면.

26) 여성지의 광고 속에서 여성의 성역할을 정당화해주는 이념과 문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방식인 ‘웰빙시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종민, 박경희, 최서경, 「여성 성역할에 관한 환상주제의 시대적 변천」, 『광고연구』 99, 한국광고홍보학회, 2013, 92면.

27) 동아 제약, 한일 약품, 한독 약품, 유한 양행, 종근당, 영진 약품, 일동 제약, 한국 화이자 등.

28) “이게 다 노쇠 현상이라 생각하니 인구 씨는 입맛이 썩었다. 이제 정말 인간으로서 또는 남자로서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씨에게는 새삼 들었다.” -10면.

29) 건강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소설이 연재되었던 1970년대 건강에 대한 정의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 생리 작용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즉 식욕이 좋고 규칙적으로 통변하고 된

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사범/캠페인/프로그램, 생명 현상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이름 붙이기 등을 포함한 의료화는 삶을 포획하고 길들이는 통치의 양상이다.

인구는 더 늙기 전에 재미를 봐야 한다는 부추김에 못 이긴 척 계 사장에게 경희를 소개 받는다. 대학생인 경희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인구와 계약서를 쓰고 원조 교제를 한다. 이 원조교제는 인구에게 성욕의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건이다.

그럴 때면 씨는 소년처럼 공상력이 한껏 부풀어 올라 마음속으로 소녀를 어루만져도 보고 꼭 끌어안아도 보고...(중략). (75)

약속한 토요일이 오자 씨는 속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일부러 이발까지 하고 처음으로 여자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청년처럼 기대와 흥분에 취하여 약속장소로 찾아간 것이다.(100)

...그렇게 생각하면 경희라는 묘한 소녀에게 씨가 기우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경희를 사귀면서부터 씨는 잃어가던 많은 것을 되찾고, 미처 몰랐던 새로운 감정을 발견도 했다.(130)

경희와의 만남에서 인구는 자기 자신이 소년이나 청년이 된 것처럼 느낀다.³⁰⁾ 평소 인구는 중년 남성인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늙은 신체에 대

기가 좋고 잘 자고 자세가 바르고 체격이 균형 있고 발달이 좋고 저항력이 있어 질병에 잘 안 걸리고 기타 정밀 검사로서도 이상이 없는 신체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가정 생활과 사회 집단 생활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를 건강인이라 할 수 있다.” -김명호, 김옥실, 『보건교육—개인 위생 및 공중 보건』, 수문사, 1970, 10면.

30) “그처럼 젊고 싱싱하고 매력 있는 아가씨와 어떠한 비밀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 인구 씨를 소년처럼 흥분시켜준다. 인구 씨는 가끔 나이도 사업도 가정도 다 잊고, 그러한 신선한 흥분에 푹 잠겨보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치미는 것이다.”(78), “또한 인구 씨는 경희와 호텔에 들 때마다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온 기분이 들었다. 귀에 익지 않은

한 힘오와 자조를 감추지 않는다. 길에서 스치는 중년 여성들의 몸과 젊은 여성의 몸을 비교하거나, 경희를 만나러 다방에 앉아 있다가 눈총을 받고 무안해하기도 한다.³¹⁾ 늙은 몸과 노화를 경멸할수록 자신을 ‘신선한 흥분’에 잠기게 해주는 경희의 존재는 인구에게 특별해진다. 비유하자면 인구에게 경희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강장제와 같다.

인구는 경희에게도 건강을 살피라고 당부한다. “사람에게 있어 건강이란 귀중한 밑천이기 때문에 먹는 데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경희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만은 충분히 취해요. 호강을 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91)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인구가 경제적 능력을 이용해 경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건강 담론이 ‘발병 후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방과 관리의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에 이르면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치명적이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보다, 만성적이고 다요인적인 병이다. 정책과 실무측에서 모두 질병의 예측과 예방을 강조하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했다.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체계가 자리잡은 것이다. 개개인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것

생소한 대화와 어색한 감정의 교류가 씨에게 그런 느낌을 한층 강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130)

31) “발랄한 젊음과 그 젊음만이 갖는 육체미, 특히 각선미에 자신이 없는 중년 이상의 여자들로서는 도저히 흉내내지 못할 스타일이다. (중략) 탄력성을 잃은 무토파 같은 본때 없는 다리와 한아름이나 되는 정그러운 엉덩이 위에 짧은 스커트를 걸쳐보라.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기 때문이다.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여자에게 있어서는 젊음은 보배다. 나이가 들수록 인구 씨는 그것을 한층 실감해왔다.”(77-78)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쌍쌍이 짝을 지은 남녀의 일행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띈다. 거의가 이십 대, 나이든 축이랴 삼십 내외의 젊은 축이다. 그런 데 비해 오십을 바라보는 자신이 몸치장을 하고 미리 나와 앉아 딸 같은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인구 씨는 새삼스레 열적었다.(100)”, “저런 노후해 버린 시대적 폐물이 엉뚱하게 왜 이런 곳에 나타났나 하는 눈초리”(101).

은 곧 스스로 건강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³²⁾

그러던 어느날 친구 박창갑이 갑자기 사망한다. 박창갑의 사망은 인구를 포함한 친구 집단에게 큰 충격을 준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육십이 넘었고, 칠십 팔십까지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 세상에서 오십도 채 못 살고 죽었다는 것은 역시 단명이 아닐 수 없”(160)기 때문이다. 건강 담론은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측정과 수명률, 발병률, 완치율,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따라 평균을 산출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간주한다. 한편으로 꾸준한 관리와 자기계발을 통해 신체를 적절한 건강과 바람직한 노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를 생산한다. 각종 통계와 의료 정보가 산출한 ‘평균 수명’이라는 정보가 있는 한, 창갑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인구와 친구들은 죽음의 원인을 “술과 여자”라고 추측한다. “사람도 사십이 넘으면 전신의 혈관이 노후화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150)는 의료 정보를 언급하거나, “중년 이후의 과도한 주색은 역시 건강에 나쁘니까.”(160)라며 창갑의 생활 습관 중 특히 음주와 과도한 성생활을 특정한다. 박창갑의 사망 원인은 그가 과음과 지나친 성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기정사실화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태생적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생활습관설은 개개인을 위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행위자로 상징한다. 어떤 사람이 만약 생활습관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그 자신의 실패로 통한다. 이러한 생활습관 병인론은 ‘희생자 비난하기’의 성향을 내포한다.³³⁾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개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32) 제갈춘기, 「언론의 건강문제 틀지우기 : 신문의 담론분석을 통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3면 참고.

33) 제갈춘기, 위의 글, 2001, 17면 참고.

과식,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섭취, 과음, 약물 오남용, 수면부족, 운동부족, 지나친 성생활,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 인구와 계 사장은 이제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찾아낸다. 인구가 약속장소 코앞까지 차를 타고 오는 계 사장에게 “건강을 위해서도 좀 걸어 이 사람아. 앞드리면 코 닿을 데도 자가용으로만 행차하지 말구.”(156)라고 핀잔을 주면, 계 사장은 변명한다. 계 사장 또한 인구에게 “그러게 자네나 내나 이제 만사에 조심해야 해. 특히 술과 여자는 도를 넘어선 안 돼. 참날 자넨 그동안 금욕생활을 해오던 끝이라, 미스 안과 과도한 접촉에 빠지는 거 아닌가?”(150-151)라며 주의를 준다. 계 사장은 인구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문제 삼으며 원조교제를 중개했지만, 이번에는 과도함을 경계한다. 성생활은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 조절의 대상이 된다.

그러고보니 씨 자신도 마음에 은근히 걸리는 바가 있다. 경희와 만나 그 젊음에 취하다 보면 전에 없이 체력의 소모를 뚜렷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와 사귀어 지나면 모르는 새에 젊어진다고들 하는데, 확실히 정신적으로는 그런 감이 없지도 않지만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싱싱한 젊음의 매력에 자극받아 무리한 도취에 빠지게 되니 이러다가는 까딱하면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겨져 인구 씨는 떨떠름한 기분이었다.(153)

주체화의 양식에서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자기 자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프게 되고, 아픈 것은 개인의 잘못이니까. 개인이 자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게 하는 실천과 테크닉³⁴⁾은 이렇게 몸과 일상 생활에 스며

34) 푸코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산자”인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고 명명했다. 천서윤은 푸코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을 차용하여 『삼부녀』

든다. 인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활 습관이나 욕망을 검토하고, 모든 것이 적절한 강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절해야 한다. 1960년대 건강 담론은, 강압이나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표상된 건강을 추구하도록 인도하는 통치성의 특성을 드러낸다.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증진한다는 당위는 자발적인 검열과 통제의 내면화로 이어진다.

한편, 경희와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인 섹스”(189)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단한 정신적인 자극과 도발”(189)을 느끼고, “마음이 팔팔해지면 따라서 그만큼 몸도 원기왕성해지게 마련”(189)이라고 주장하는 인구에게 건강은 신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욕구는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확장된다.

3. 이상적 가족의 모순과 정상성의 전유

손창섭의 소설에서 ‘가족’은 반복되어 등장하는 소재이며, ‘계약’이나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배치된다. 경희는 인구와의 원조교제에서 친밀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구 역시 경미와 경희 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관계를 ‘가족’이라고 명명할 때 문서화 작업을 거친다. 이러한 계약서는 부부 관계에서의 금기와 규칙을 세세하게 설정한 『부부』에도 등장하며, 『인간교실』의 주인값은 부부 사이의 특별한 애정과 의무를 중시한다. 정보람은 동일하게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약속’이라는 객관화 기제를 도입하고도 『부부』는 실패하고 『삼부녀』는 성공한다고 평가하며, 차이의 원인을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찾았

를 분석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변형 시키며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한다. 천서윤은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며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안경희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보았다. —천서윤, 앞의 글, 2022.

다.³⁵⁾ 비혈연 계약 가족을 통해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에 균열을 낸다는 기존의 연구와 해석은 대체로 타당하다. 그러나 인구가 ‘어떤’ 가족을 해체하고 ‘어떤’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지, 인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대상과 대조하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당시 변화하기 시작한 가족의 의미와, 가족이 중요한 통치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한 맥락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구 씨의 집안에는 가정적인 단란한 분위기가 없었다. 아내와의 이혼과 동시에 그런 것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었다. 인구 씨는 혼자 힘으로 가정에 웃음과 평화와 희망을 최소한 되찾아보려고 애썼다. (중략) 씨는 또한 아이들과 한방에 모여 담소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힘썼고, 봄여름이면 사십 평 가까이 되는 정원에 아이들과 함께 화초를 가꾸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전보다 후하게 지불해주었고,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여 고궁이나 유원지를 찾아가 하루를 즐겼다. (109)

이혼 당시만 해도 인구 씨는 마누라만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다. 거기서 오는 상처의 여독이 남긴 해도 어느 정도의 시일이 흐르면 가정의 평화와 단란은 회복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주부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쉽사리 메울 수 없었고, 그 영향력은 자신의 혈통 속에 까지 미쳤다.(124)

인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자상하고 민주적인 아버지 그 자체이다.³⁶⁾ ‘평

35) 정보람, 앞의 글, 2018.

36) 1960년대의 가족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권력관계가 근대적 형태로 재편되었다. 잡지 담론들은 균형적인 남녀 간 권력관계를 추구하며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인 남편 우위를 절제했다. 부부 간 권력관계 중 ‘동료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안되기도 했다. 이 동료형은 “상호이해와 믿음에 기초”하고, “의사의 존중과 타협 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며, 공통된 생활습관을

화와 단란'은 이혼이라는 사건이 잠시 훼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복원되는 가정의 속성처럼 서술된다. 그래서 인구는 이런 '가정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이 불만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가정에 대한 인구의 욕구는 자연스럽다. 누구나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와 연대, 소통과 배려, 이해와 공감 등과 같은 친밀성의 공유에 기초한 '정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인습적인 가족 관념에 구속강박되어 최소한의 친밀성이나 정서의 교감 없이 형식적이고 생물학적인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³⁷⁾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식'은 서정적 가족주의에 기반하는 것이다. 서정적 가족주의란 현대 산업주의 사회에서 가족을 다양한 몰인간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서정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념으로, 근대의 산물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욕망이다. 근대화를 거치며 생산노동은 가족 외부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공적/사적 영역의 구별이 발생했다.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자 친밀성의 공간, 외부 세계로부터의 피난처이자 휴식처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가정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정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동자 가족의 사회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성원 사이의 애정적 유대는 심리적 기초다. 또한 가족성원 사이의 관계는 도덕적인 상호 의존부양 관계가 중요하다. 서정적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개체 존중을 가족 관계에 내재화시켰으며,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변화를 수반했다.³⁸⁾

전근대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노동 연합이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핵가

갖도록 조정한다." - 「夫婦關係의 型과 條件의 設定」, 『여원』, 1962. 6: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부부/가족 표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커니즘 : 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 이선미,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 —『여원』 만화의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37) 공종구, 앞의 글, 2012, 26면.

38)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105-106면 참고.

족화가 이루어지며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1년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지금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정상 가족’이라는 표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통했다. “입법으로써 단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을 통한 계몽으로써”³⁹⁾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족계획사업은 강제나 금지가 아니라 통치성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 국책화 이후 약 20여년간 피임술의 보급, 홍보와 계몽활동, 제도 및 법률의 정비, 조사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둘러싼 일체의 것들을 사업의 영역으로 포괄하면서 시행되었다.⁴⁰⁾ 적절한 가족의 수를 통해 명량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룩하지는 목표는 부부 관계를 가장 중요하고 독보적인 관계로 설정했다. 감정이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가족, 특히 근대 부르주아 가족의 출현과 더불어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었다.⁴¹⁾ ‘가정적’이라는 개념이나, ‘단란한 스위트홈’이라는 표상, 정상 가족의 모델은 1920-30년대에 처음 출현하지만 이 시기 국가 주도로 인해 적극적으로 확산된다.⁴²⁾ 가족계획 담론에서 낭만적 사랑과 연애결혼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고 선명하게 옹호되었으며, 생식을 위한 도구적 섹슈얼리티,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결혼, 가족 내 다른 관계에 종속된 부부관계, 무계획적인 출산과 양육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습성으로 비판되었다.⁴³⁾ 정상가족은 혈연 관계가 기본이지만, 혈연 관계가 있어도 이러한 근대적 가치를 갖추지 못하면 결핍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39) 「산아제한 입법 않는다」, 『경향신문』 1961년 10월 18일자; 「가족계획」 운동을 구상·박의장, ‘인구조절’ 문제에 언급, 『동아일보』 1961년 10월 19일자.

40) 조은주, 앞의 책, 2018, 76-77면.

41) 조은주, 앞의 책, 2018, 209면.

42) “안정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주주가 되기도 하고, 가장은 가족과 더불어 주말을 즐기며, 주부는 편리한 부역을 갖춘 살기 좋은 주택에서 알뜰한 생활을 꾸”미고, “자녀는 씩씩하게 자라고 슬기롭게 배”우는 것이 당시 등장한 바람직한 가정의 모델이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 국가기록원.

43) 조은주, 앞의 책, 2018, 228면.

인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은 아니다. 그러나 자상하고 민주적인 아버지라는 상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 구조를 은폐하고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구는 보경에게 시집가기 전에 집안일을 배우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딸의 순결을 단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주장하거나, 대화에서 수세에 몰리면 손을 올려 위협한다. 딸들이 전처와의 재혼을 원하자, 협박도 불사하며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통제하려고 한다.⁴⁴⁾ 이러한 인구의 모습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구의 언어’로 묘사되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상이란 어딘지 위태롭다.

사실 보경과 보연은 각각 스무 살과 열일곱 살로, 중년 남성인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친밀함을 제공할 나이가 아니다. 소풍이나 담소, 용돈도 딸들의 요구가 아니라 인구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딸들은 보호의 명목으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정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래도 인구는 자신의 가정에 평화와 단란이 없는 원인이 “주부가 남기고 간 빈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내 없는 가정, 어머니 없는 집안의 허전함과 쓸쓸함은 간단히 지워지지 않았다.”(110), “주부 없는 스산한 가정을 돌이켜볼 때”(66) 라는 대목에서 아내이자 주부는 가정에서 대체불가한 존재로 표상된다. 1960-70년대는 가정의 관리자이자 과학적 모성과 내조의 주체로 여성을 ‘주부’로 호명하고 훈육했다. 인구는 이상적이고 단란한 가정이라면 주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함께 살게 된 경희가 채운다.

비에 젖어 돌아온 날은 물론이지만, 평소에도 저녁마다 인구 씨의 양

44)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되는 것이다. 헤어진 모친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고, 방중한 행동을 삼가고, 부친의 처지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가정에 애착을 갖고 부친에게 좀 더 밀착해오지 않는 한 이 가정을 완전히 해산해버리고 말 테다 하는 선의의 협박일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리 되면 보경이나 보연이나 짙게 해서 부친을 중심으로 가정적이고 가족적인 화합과 단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씨에게는 없지도 않았다.”(140-141)

복에서부터 와이셔츠와 속내의 양말까지 일일이 점검할 것을 경희는 하루도 잊지 않았다.

“남자고 여자고 옷은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해요. 더구나 남자의 와이셔츠 칼라와 소매에 때가 끼든지 양말에서 냄새가 나면 아주 더러워 보여요.”

경희는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내의류는 빨아달라고 식모 아주머니에게 추려서 내주었고, 양복에 커피나 그밖의 음식 국물 같은 것이 떨어져 얼룩이 지거나 흠물이 튀거나 버스에서 기름이 묻은 자리라도 있으면 수건을 빨아 닦아내든지 휘발유로 문질러 지웠고, 조금이라도 구김살이 있으면 으레 물을 뿌려서 다리미질을 했다.

헤어진 마누라도 이렇게까지 꼼꼼하지는 못했고, 보경이와 보연은 흥내도 내본 적이 없었다.(218)

아내가 행하는 다양한 집안일은 ‘내조(內助)’로 명명된다. 근대 이후 내조는 ‘핵가족’의 형성 및 ‘가족의 부각’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는 한편, 과거와 달리 지배-복종관계가 아닌 자주적이고 남편과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내조의 근대적 성격’이 강조되었다.⁴⁵⁾ 인구는 경희의 내조를 전처 뿐 아니라 딸들과도 비교한다. 인구가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상과 아내를 경희가 실현해준다. 내조에는 물리적 측면 외에 심리적, 정신적, 지적 측면이 포함된다.⁴⁶⁾ 감정 노동이나 성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내조가 권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희는 모범적인 아내의 전형이다.⁴⁷⁾ 한 명이 여러 역

45) 장미경, 2007).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2007, 142-180

46) 특집기사 「원만한 가정을 위한 아내의 역할」, 『여원』, 1969. 2, 262-271면.

47) 김주리는 경희가 가부장제 사회가 이상화한 현숙한 주부이자 우부의 역할을 동시에 해냄을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젊은 여성들과 중년 남성 인구가 맺는 유사가족관계란 “평등한 ‘부부’의 수평적 시선-역응시의 관계가 아니라 제복처럼 ‘삼부녀’라는 수직적 관계로 재편’ 된다는 문제의식은 본 고와 일치한다. 김주리는 인구가 여성들을 통해 자신이 얻는 즐거움에만 집중한다며, “젊은 여성들의 욕망이나 내면이란 그에게 아무런 의구심도, 호기심도 불려일으키지 않는다. 그녀들은 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목욕하며 젊은 나체를 전시하고 그를 살뜰히

할을 수행하는 경희는 남성들에게 경제적 효용이 높은 존재이다.

경미는 인구와 경희가 형성하고 있는 유사 부부 관계에서 딸 역할이다. 다양한 기교와 애교로 이 계약 가족을 즐겁게 한다. 요정에서 일하며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을 큰 재미로 삼던 경미는 인구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다소 교화된다. 식모에게 살림을 배우고 학교 입시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경미의 시험을 거친다. 경미는 한 이불에서 벗고 자고도 아무 일 없으면 인정하겠다고 요구하며, “친아버지가 아니곤 그렇지 못할 거거든요. 대개의 남자들이란.”(208)라고 자조한다. 인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경미는 “저도 아저씨 같은 아버질 갖고 싶었어요. 다음엔 아저씨 같은 신랑을…….”(209)하고 감동하며 흐느낀다. 경미가 인구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양도하고 가부장으로 인정하는 순간이다.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관계성이다. 한편, 성적 매력이 있는 딸과 아내를 동시에 얻은 인구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가정의 이상에 도달한다.

경희와 경미는 말하자면 제일 급의 작부요, 바걸이요, 친구요, 애인이요, 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희만은 제한된 아내이기조차 한 것이다.(228)

일단 집에만 돌아오면 인구 씨는 술집에 간 기분도, 바에 간 기분도, 동지끼리의 환담 기분도, 젊은 애인과의 밀회 기분도, 귀여운 딸들의 재롱 기분도, 살뜰한 아내의 보살핌도 다 맞볼 수 있는 것이다.(228-229)

인구가 두 사람을 인식하는 양상에서 권력의 축은 명백하게 인구에게 기울어져 있다. ‘제일 급의 작부’, ‘바 걸’, ‘친구’, ‘애인’, ‘딸’은 모두 인구가

돌보아주는 동시에 때때로 그를 유혹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거나 가끔은 집 밖에서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그에게 지극한 성적·가족적 만족을 주는 계약 상대로 자리매김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한다. -김주리, 앞의 글, 2019, 360면.

원하는 감정노동과 성적 향응을 제공하는 대상이다. 인구는 경희나 경미에게 ‘바 보이’나 “귀여운 재롱” 같은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교환되는 감정의 축에서 인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정도인데, 경희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남편을 원한다. 그리고 인구가 남편이나 애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경미가 인구를 유혹하려던 시도는 미수에 그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성적 긴장감이 남아 있다. 경미를 바라보는 인구의 시선 또한 결백하지 않다. 술에 취한 경미를 부축하면서 젊은 신체의 접촉에 쾌감을 느끼거나, 혼탕을 하면서 경미의 신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등 명백하게 경미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다. ‘진짜’ 딸들은 “아무리 젊고 예뻐도 그건 신성불가침의 상대”(189)지만, 딸 역할의 경미는 언제든지 성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존재이다.

결국 이 계약 가족은 남성 주체인 인구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구성된 것이다. 세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상호 존중이나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경제적인 문제⁴⁸⁾는 매우 중요하다. 성별이나 나이차로 인한 위계 또한 실재한다. 인구는 여러 면에서 경희나 경미보다 우위에 있고, 계약 관계는 인구의 관용과 호의에 기대어 유지된다. 경희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다.⁴⁹⁾ 경희와 경미는 인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격적 특질과 품행의 소유자에게 인구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경미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정 되고 교화 된다. 경희는 경제적 이유로, 경미는 자신의 결핍인 ‘이상적 가부장의 도덕성’을 선망하며 인구에게 감정 노동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성실한 역할론에 기반한 윤리적 가족극”⁵⁰⁾을 수행하는 가

48) 김세준, 앞의 글, 2015.

49) “그건 그래. 향이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도대체가 한국 남자들이란 모두 구질구질하거든. 나두 아저씨와 처음 계약 당시는 무척 불안했어. 제멋대로 나오면 어떡하나 하구. 그런 종류의 구두계약 따윈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210)

50) 김주리, 앞의 글, 2019, 362면.

족이 중년 남성의 욕망만을 반영하거나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소설의 서술이 미묘하게 모순되거나 충돌하고, 여성 인물의 언행이 의미심장한 까닭이다. 인구가 여성 인물의 내면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들에게 자신의 의사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희는 인구가 이상화한 이 계약 가족이 임시에 불과하며 경제적 이해 관계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인구는 종종 두 사람을 ‘애인’이자 ‘아내’, ‘딸’이라고 표현하나 경희는 이런 명칭에 회의적이다. 인구에게 “어머머!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이기라도 한 듯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192)이라고 선을 그은 경희가 말하는 관계는 기껏해야 “동업자? 아니 단골 거래처?”(196) 정도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아저씨의 와이프는 아니니까요.”(218)라며 “경고하듯”(218) 말하기도 한다. 경미가 친구의 딸이니 준혈육과 다름없다는 인구의 말에 대한 경희의 반응을 보자.

“혈육 좋아하시네. 도리어 그런 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남남끼리 의남매니 뭐니 하면서 오빠니 누이니 하는 거라든지, 친구의 딸이니 준혈육이다, 반혈육이다 하는 건 따지고 보면 일종의 준비운동 아니에요. 언젠가 신문에서 떠들어댄 사건 기억 안 나세요?”(191)

세 사람이 표방하는 것이 바로 “남남끼리” 맺은 비혈연 가족이다. 경희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딸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친구의 딸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미를 성적으로 탐닉하는 인구의 모순을 그대로 꼬집는다. 경희는 양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가족의 친밀성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남성들의 허울 좋은 변명이라는 사실을 경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인구가 원하는 계약 가족에 적당히 참여하며 강인구를 만족시켜준다. 이런 경희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인구가 결혼 제

도를 비판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여자의 경운 약간 다르지. 남편이 아내에게 참된 즐거움과 보람을 주진 못해도, 적어도 먹을 것과 옷은 줄 수 있거든.”

“그렇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정신적인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여자는 빵과 옷을 위해서 남자에게 육체를 제공하고, 사랑이란 금분(金粉)으로 위장하는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아저씨 결국 결혼과 가정의 부정주의자시군요.”(236)

인구는 재혼을 거부하는 이유로 “빵과 옷을 위해서” 남자에게 사랑을 위장하고 “육체를 제공”하는 제도가 결혼임을 비판한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자신과 경희가 맺은 관계의 본질이다. 인구는 계약 가족의 단란과 정서적 만족이, 그 자신이 통렬하게 비판하는 결혼제도에서 위장용으로 쓰이는 ‘금분’이라는 모순을 자각하지 못한 채 폭로하는 셈이다. 어머니가 여러 차례 이혼한 전적이 있고 인구 역시 이혼했음을 뻔히 아는 경희가 부부를 혈연보다 앞서는, 영구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경희가 생각하는 ‘가족상’과 ‘남편상’은 따로 있으며, 이는 인구가 계약 가족에서 그리는 그림에 포섭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구만 모르는 동상이몽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인구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뜻이 같으면 생사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동운명체”(216)라는 표상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균열을 낸다. 이 지점에서 『삼부녀』는 가족과 부부 모티프를 다룬 손창섭의 이전 소설과 구별된다. 『부부』, 『이성연구』, 『인간교실』 등에서 등장인물들은 ‘이상적이고 좋은’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탐색한다. 문제는 그저 ‘지금’의 가족이 가족의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지 못하는 결핍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치열한 조정을 거치거나, 이혼을 감행한다. 그러나 『삼부녀』에서는 이상적 가족상의 모순이 노골적

으로 드러나고, 가족은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에 기반해서 형성·해체되며, 개인에게는 가족이 채워줄 수 없는 고독이 있음을 전면화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란 누구나 외로운 거야.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말이야. 그 외로움이란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야. 결국 각자 스스로가 짊어질 수밖에.”(235)

경희의 발언은 가족이 중요한 통치의 도구로 작동하는 지점을 무력화한다. 가족은 통치의 도구로서 “개인을 규율체계에 고정시키는 연결점(interlocking point)”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을 받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규율체계로 되돌려 보내는 “교차로(junction)”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⁵¹⁾ 경희는 인구의 성적 판타지에 충실히 복무하며 이상적 가족 형성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내재된 모순을 간과한다.

『삼부녀』의 계약 가족은 구성원 자체만 놓고 보면 당대의 혈연중심 정상가족 체계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가족’이다. 파격적이고 기묘하다. 그런데, 단란하고 화기애애하게 저녁 시간을 함께 하고 구성원이 상호 존중을 추구한다는 점은 근대적인 핵가족의 ‘이미지’와 만들어진 ‘가족의 본질’에 부합한다. 게다가 비혈연 가족이라는 점은, 사실 부부부터가 애초에 혈연이 아닌 계약으로 형성되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계약 가족에서 유사 부부를 수행하는 여성은 남성 주체의 환상과 필요에 충실히 응답하며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듯 하면서 배반한다. 이 계약 가족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비판하는 결혼제도의 폐해를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형식과 성

51) 조은주, 앞의 책, 2018, 276~277면 참고.

질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열음은 ‘진정한 가족’과 ‘가족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가족의 본질과 수행성에 대한 의문은 ‘가족은 으레 이러해야 한다’라는 규범이 무엇을 목적으로 작동하는지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4. 나가며

지금까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건강과 가족을 중요한 매개로 삼는 1960~70년대의 통치성과의 관계 속에서 『삼부녀』를 살펴보았다. 1960년대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주권 권력과 규율권력, 일상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생명 권력이 중첩된 통치성의 시대였다.

『삼부녀』에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을 염려하고, ‘중년’에 이른 몸을 의식하며 노화 작용을 늦추고 싶어한다. 미디어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건강 담론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자기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을 요청 받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일상적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족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확장된다. 인구에게는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이상적인 상이 있다. 1961년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가족을 통치의 도구로 삼아 가족의 정상화를 꾀한 국가 기획이다. 출산 조절을 통해 소규모 핵가족을 형성하고, 이들이 평등한 가족 관계를 맺고, 민주적인 아버지와 현명하고 과학적인 전업주부 어머니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소설이 인구의 관점에서 진행되기에 어디까지나 ‘인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점, 표면적으로 평등과 상호 존중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변에는 성적 대상화나 경제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새로운 계약 가족의 한계로 꼽힌다. 그런데 당대의 통치성에 초점을 맞추면, 이 파격적인 비혈연 가족이 당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유통된 이상적 가족의 본

질에 가장 충실하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인물의 언행은 지속적으로 서술의 균열을 일으키며 계약 가족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도한다. 지배적인 모델로 유통 되는 정상가족의 단란한 이미지는 사실 혈연으로도, 평등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계약으로도 획득할 수 없다. 그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제시되는 방법론을 자기 관리 주체가 열심히 실천할 뿐이다. 『삼부녀』는 당대의 통치성이 제시하는 이상적 가족상의 모순과, 자기 관리 주체의 욕망이 작용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손창섭, 『삼부녀』, 예옥, 2010.

2. 단행본

1) 국내 서적

김명호, 김옥실, 『보건교육—개인 위생 및 공중 보건』, 수문사, 1970.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선집6』, 지문각 1969.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조은주, 『가족과 통치—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2) 번역서

토마스 램케, 심규보 역, 『생명 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5, 66면.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지식의 의지』, 나남, 2004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2011

3. 논문 및 평론

「夫婦關係의 型과 條件의 設定」, 『여원』, 1962. 6:

「산아제한 입법 않는다」, 『경향신문』 1961년 10월 18일자; 「가족계획' 운동을 구상: 박 의장, '인구조절' 문제에 언급」, 『동아일보』 1961년 10월 19일자.

강수환, 「박정희 신화라는 꿈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1960년대 한국의 통치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7, 2018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양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강지희, 「1960년대 남성성의 유희과 속물적 주체의 탄생」,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 현대문학회, 2017.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권보드레,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보』 제 30호, 2010.

김남희, 「1960년대 개발발전 국가의 `증여 통치' 일고(一考)-손창섭의 사회사업 모티 프 소설 재독」,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9, 2008.
-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53, 역사실학회, 2014.
-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회, 2007.
- 김주리, 「손창섭 소설 속 여성의 나체와 시선의 문제」,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2019.
-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 융합』 31,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
- 박종민, 박경희, 최서경, 「여성 성역할에 관한 환상주제의 시대적 변천」, 『광고연구』 99, 한국광고홍보학회, 2013.
- 박찬효, 「손창섭의 『길』에 나타난 지배 담론의 균열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 방민호, 「막장 드라마의 이면—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 예음, 2010.
- 손창섭 대담,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세대』, 1963.8.
-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송주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탈주 욕망과 여성성 : 1960년대 장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 염승숙, 「신(新) 가정의 건설과 가부장(성)의 굴레—손창섭 장편소설 〈부부〉 연구」, 『한국문학연구』 47, 2014.
- 이선미, 「1960년 전후 (성) 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성—손창섭의 『부부』(1962)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 이정옥, 「경제개발총력전 시대 장편소설의 섹슈얼리티 구성방식」, 『아시아여성연구』 42, 2003.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2007.
- 제갈춘기, 「언론의 건강문제 틀지우기 : 신문의 담론분석을 통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천서윤,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장치’로서의 결혼과 가족주의의 균열—김승옥의 『보통 여자』와 손창섭의 『삼부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1,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천이두, 「60년대의 문학, 문학사적 위치」, 『월간문학』, 1969.12.

특집기사 「원만한 가정을 위한 아내의 역할」, 『여원』, 1969. 2,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2013.

홍은영, 「푸코와 우리 시대의 건강 담론 —의료화 현상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50,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Abstract>

A Study on Governmentality and Health/Family Discourse in the 1960s

– Focused on Son Chang-seop's 『Father and Two Daughters』

Lee, Jinsong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on health and family in Son Chang-seop's 『Father and Two Daughters』 by applying Foucault's theory of governmentality.

In 『Father and Two Daughters』, we can find aspects in which health discourse in the 1960s regulates individual daily life and way of thinking. As a subject of self-management, the new contract family formed by Kang In-goo is most in line with the function of a normal family in circulation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it is ironic because it has the form of a so-called abnormal family. At this point, the effect of twisting governmentality occurs.

Key words: Son Chang-seop, 『Father and Two Daughters』, Foucault, governmentality, health discourse, contract family

투 고 일: 2023년 2월 15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